

아굴의 두가지 소원

아굴은 죽기전까지 두가지를 달라고 평생을 소원했다. 첫번째는 정직한 삶이고 두번째는 심한 가난도, 분에 넘치는 부자도 싫으니 필요한 재물만 달라고 했다. 잠언 30 장 7~9 절의 이 말씀은 이민 초기에 교회 원로 목사님이 우리집 심방을 오셔서 봉독해 주신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틈이 나면 내가 즐겨 묵상하는 말씀중의 하나이다. 나는 과연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다. 정직하지 못했다. 그러면 남은 세월을 정직하게 살 자신이 있는가? 아니다. 노력할 뿐이다. 그러면 가난하게도 부유롭게도 살게 하지 마옵시고 일용한 양식만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나의 진심일까? 아니다. 이민 초기의 가난한 시절에는 하루빨리 이가난에서 벗어나기만을 소원했지만, 지금 내면의 진심은 다시 과거의 부자로 살고 싶은 마음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일순간에 모두 빼앗아 가신 내 재산을 다시 돌려주십사, 아니 10 배, 100 배로 뽕튀기를 해서 되돌려 주십사” 라고 기도하고 싶다.

하지만 아굴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간구한 것이 무엇일까를 내 좁은 소견으로 되짚어 보며 그렇게 살기를 소망한다. 아굴은 솔로몬왕의 곁에서 국사를 조언하고 후손들이 필요로 하는 교훈을 가르치고 문서화한 사람이다. 그는 무명의 기도인이지만 겸손한 사람이다. 그는 돈의 위력을 시인한 솔직한 사람이다. 돈은 영적인 삶과 긴밀하고도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활의 필수조건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신경제에서는 가난한 자만이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는 작은 도둑질을 하지만 부자는 더 큰 도둑질을 한다. 또 부자라고 모두 하나님을 잊고 살지는 않는다.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니까 하나님을 멀리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못벌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는 강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돈을 버는 것은 현대판 <게임의 법칙>에 따라 달라진다. 지상의 수많은 책들과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설파한다.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일류대학을 나오고 전문 직종에 근무하며 고임금을 받는다면 부자가 되기 훨씬 유리한 출발점에 설 것이다.

그렇다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학벌이 낮다고 부자가 못되는 것은 아니다. 또 죽어라고 열심히 일하고 구두쇠처럼 돈을 안쓴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돈의 게임>은 돈의 실체와 돈의 흐름과 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돈에 관한 <게임의 법칙>을 공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천하지 않는다. 돈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돈 달라고 बारबार 악을 쓰지 말고 <게임의 법칙>을 공부하여야 한다. 예수께서 목수로 일하실 때 구부러진 못을 펴는데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부자가 되는 게임에는 정당한 게임과 불공정한 게임이 있다. 정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불공정한 게임을 해서 돈을 벌지는 않는다. 남의 돈을 훔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축적하지 않는다. 그러니 아굴은 정당한 게임의 법칙으로 필요한만큼의 돈을 벌고자 한 것이다.

하나님은 계급상의 적을 두지 않으신다.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똑같이 구원하신다. 가난이 완전한 불행은 아니지만 분명 우리가 삼아야 할 목표는 아니다. 부귀가 경건의 결과가 아닌 것 처럼, 가난이 경건의 증표는 아니다. 재물이 비록 허영과 악에 노출되어 있고 종속되어 있을지라도,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분께 감사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옳다.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결국 사람은 빵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물질을 구하는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부자가 정죄받는 경우는 자신의 부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에 사용하지 않는 것과 (약 5:2-3), 마지막 날에 재물을 쌓는 것 (약 5:3),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는 것 (약 5:4), 돈 때문에 다투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는 것 (약 4:1-5)이라고 말씀하신다. 부자가 되면 교만하게 되고 동정심과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잃을까 염려하시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탐욕이다. 조금만 더 가지려는 욕망, 다른 사람을 희생하면서까지 차지하려는 욕망을 염려하는 것이다.

그러면 필요한 만큼의 돈(양식)은 얼마가 적당한가? 헤르만 몰데즈는 이렇게 규정한다. “첫째는 <자족>이다. 물질적인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고 나누어 가지는 법을 배워야한다. 둘째는 <절제>이다. 간소함은 경건이라는 만족에서 나온다. 만족이란 기본적인 필요만으로 충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남지 않게 하고, 적게 가진 자는 모자라지 않아야 균등한 세상이 된다. 세째는 <의존>이다.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기는 사람만이 재물의 탐욕에서 자유하여 현재의 소유에 만족할 수 있다. 사람들은 현재의 좌절과 미래에 대한 염려때문에 소유에 집착하며 베풀지 못한다.”

결론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사용할 것인지,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가지되,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 소유하되 소유에 얽매이지 않는 능력, 가지되 움켜쥐지 않는 너그러움, 너무 가난하지도 너무 부유하지도 않는 삶, 이것이 참된 부요에 이르는 길이야닐까... 우리 모두는 과연 시지프스의 후예들인가. 참으로 쉽고도 어렵다....